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초점 주의의 매개효과*

신 수 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박 은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87명의 자료를 SPSS 22.0과 Mplus 7.0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문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문제 양상에 다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은 세 가지 대인관계문제 모두에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사람에게 멀어짐 문제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에 따라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양상이 다르며,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자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거절이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대인관계문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본 연구는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주최 2020년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3843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E-mail: eyp0202@cu.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간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복잡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 성장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전반적인 삶의 기쁨을 마련하기 때문이다(Arnett, 2014; Kerpelman & Pittman, 2001). 그러나 이 시기에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대학생들과 이후 사회적응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정, 장현아, 2017).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려 한다. 본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적응적인 기술로 볼 수 있다(장효진, 안명희, 2015).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러움을 넘어 지나치게 경직되고 극단적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는 자신의 긍정적인 인상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제시의 극단적인 표현 욕구로 정의된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자신의 완벽함을 남들에게 보여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은 자신의 실수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공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이런 실수를 타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꺼려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함구하거나 부인하고 실수를 방어적으로 숨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과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Flett & Hewitt, 201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존경, 소속감 등을 얻기 위해(Baumeister & Leary, 1995)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려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등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행동한다(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또한 자신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유능한 모습은 드러내려 하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Hewitt et al., 2003).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Flett, Besser, & Hewitt, 201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신경증적 표현양식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를 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요인은 우울 및 사회불안과 모두 정적 관련이 있으나, 그 관련성의 정도는 각 하위요인마다 다르게 나타났다(하정희, 2011a; 한가희, 김정민, 2017; Hewitt et al., 2003).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또래관계의 질과 약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또래관계의 질과 강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원우, 2015).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이한 행동패턴이나 적응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김다정, 오경자, 2017; 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인관계문제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호소하는 문제 영역이며, 크게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2006). 첫 번째로 ‘사람에게 맞섬’은 공격적인 경향으로,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사람에게 맞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순종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에게 향함’은 순응적인 경향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타인은 우월하나 이에 비해 자신은 열등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관심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는 특성이 있다. ‘사람에게 향함’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타인의 호감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세 번째 ‘사람에게 멀어짐’은 고립적인 경향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특성이 있다. ‘사람들에게 멀어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좋아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감정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면서 논리나 이성적 사고를 매우 우선시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각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에게 맞섬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연수, 2016). 또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에게 향함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이런 상황에 당면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므로(오홍석, 2007), ‘사람들에게 멀어짐’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세 가지 모든 대인관계문제 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와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자신의 무능함, 실수, 단점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인과의 친밀감을 불편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멀어짐'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억제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람에게 향함'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Flett, Hewitt, & De Rosa, 1996). 반면,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어 대인관계맥락에서 상대방의 옳지 못한 모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워하므로 '사람에게 맞섬' 문제는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서수균, 권석만, 200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조절모델(self-regulation model)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만의 행동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현재 상태와 그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자신에게 과도하게 초점을 기울이게 되며, 현재 모습이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초점주의가 줄어들게 된다(Carver & Scheier, 1990). 반면에 현재의 모습이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불일치를 감소시키고자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나, 이 모델에 따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불완전한 모

습이 타인에게 드러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Greenspan, 2000; Habke & Flynn, 2002),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하고 부적절한 모습을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추정된다(김지혜, 안창일, 1991).

대인관계행동은 개인의 인지적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인지적 신념에 대인관계 그리고 타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권석만, 1995). 비현실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인지적 신념을 지닌 사람은 대인관계상황에서 맥락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인상을 왜곡되고 편향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과 같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홍경화, 2011). 또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여 상황적 맥락이나 타인에게 관심을 두는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대인관계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손정일, 2015), 적절한 사회적 대처를 못하게 되고, 공감적 반응 또한 저해하여(권선중, 김교헌, 2007), 친밀하고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성을 각 변인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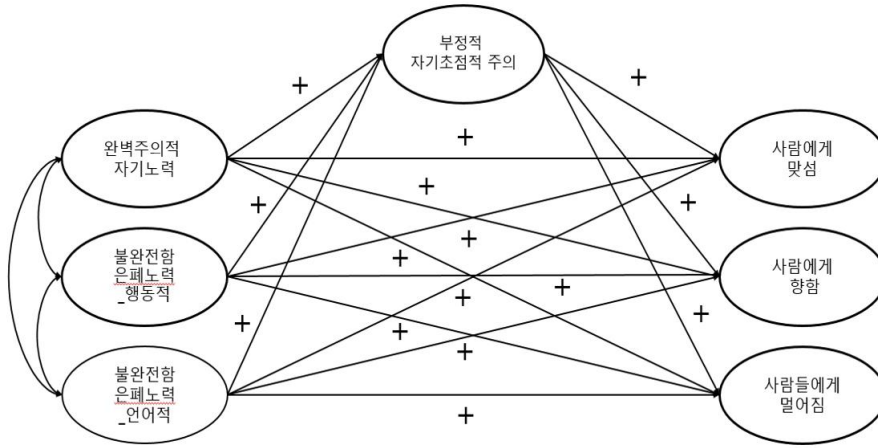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동, 불완전함 은폐노력_언어)가 대인관계문제(사람에게 맞섬, 사람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으로써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문제 유형과 관련이 깊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내적 특성을 확인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치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CUIRB-2019-0009).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자료 23부를 제외한 총 38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남자는 110명(28.4%), 여자는 277명(71.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08세(SD = 1.90)이고, 19~23세가 312명(80.7%), 23~31세가 75명(19.3%)이었다. 학년 별로 살펴보면, 2학년이 112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103명(26.6%), 1학년 90명(23.3%), 3학년 82명(21.1%)이었다.

측정도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를 하정희(2011a)가 한국 실정에 맞추어 문항을 추가 및 재구성한 후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하위척도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 400명에게 자기보고식

력-행동' 하위척도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 하위척도 6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으로 7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하정희(2011b)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전체문항은 .87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88이었으며,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은 .81,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는 .7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제작한 대인관계문제척도(IIP)를 홍상황 et al., (200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후 새롭게 구성된 단축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S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이며, 하위요인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과순응성', '자기희생', '비주장성', '냉담', '사회적 억제'로 8개이고 각 요인마다 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하위영역의 높은 점수는 그 특정 영역에서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orney(2006)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선행연구(안은화, 2012)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맞섬'에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사람에게 향함'에는 하위요인 중 과순응성, 자기희생, 비주장성, '사람들에게 멀어짐'에는 냉담, 사회적 억제 하위요인을 포

함하여 구분하였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89로 나타났으며, 안은화(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전체문항이 .93, 사람들에게 맞섬 .84, 사람들에게 향함 .89, 사람들에게 멀어짐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문항이 .94였으며,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사람에게 맞섬 .86, 사람에게 향함 .90, 사람들에게 멀어짐 .91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제작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DSA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자기몰입'에 해당하는 21개 문항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연구자에 따라 자기몰입이나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역기능적 자기초점적 주의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지영과 권석만(2005)의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내적합치도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이다.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2.0과 Mplus 7.0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전제되어야 하는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이용하여 측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검증을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온 변인들 간의 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문제($r = .39, p < .01$),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r = .39, p < .01$)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모든 변인의 왜도가 ± 3 , 첨도가 ± 10 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측정타당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인들의 측정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각 변인 별 2개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 (N=387)

변인	1	1-1	1-2	1-3	2	3	3-1	3-2	3-3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								
1-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5**	1							
1-2.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적	.73**	.44**	1						
1-3.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	.69**	.34**	.33**	1					
2.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39**	.33**	.32**	.24**	1				
3. 대인관계문제	.39**	.33**	.29**	.27**	.69**	1			
3-1. 사람에게 맞섬	.32**	.40**	.15**	.11**	.49**	.75**	1		
3-2. 사람에게 향함	.34**	.27**	.29**	.22**	.62**	.87**	.46**	1	
3-3. 사람들에게 멀어짐	.30**	.13**	.27**	.33**	.58**	.82**	.45**	.62**	1
M	4.23	3.91	5.24	3.97	2.51	2.29	2.03	2.59	2.24
SD	.67	.91	.92	.62	.75	.53	.52	.69	.76
첨도	-.03	-1.4	-.64	-.10	.06	-.09	.26	-.02	.44
왜도	-.06	.17	.77	.17	-.39	-.41	-.14	-.48	-.37

* $p < .05$, ** $p < .01$

또는 3개의 항목묶음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요인 적재치의 평균이 비슷하도록 할당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FI = .940, TLI = .923로 좋은 적합도를, RMSEA = .073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chi^2 = 459.044$, $df = 149$, $p < .001$.

다음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사이의 관계 및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60 ~ .96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변인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Hair, Black, Babin, Anderson 과 Tatham(2006)이 제안한 .5를 상회하였으며, CR값이 .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상관관계 또한 .12 ~ .65로 Kline(2015)이 제시한 .90을 넘지 않았으므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 및 측정타당성 검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지면 관계상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FI = .940, TLI = .923으로 .90보다 높게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RMSEA = .073, SRMR = .055로 나타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접효과($\beta = .19$, $p < .01$),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간접효과($\beta = .34$, $p < .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의 각 하위요인별 간접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이 ‘사람에게 향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향함’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01$, n)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beta = .13$, $p < .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람에게 향함’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17$, $p < .05$), 간접효과($\beta = .11$, $p < .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가 ‘사람에게 향함’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04$, n), 간접효과($\beta = .05$, $p < .01$)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맞섬’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28$, $p < .01$), 간접효과($\beta = .10$, $p < .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31$, $p < .01$), 간접효과($\beta = .13$, $p < .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459.044	149	.940	.923	.073

‘사람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16, p < .01$), 간접효과($\beta = .11, p < .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가 ‘사람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33, p < .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효과($\beta = .05, ns$)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를 제외한 ‘완벽주의적 자기노

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개효과 간 차이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를 제외한 ‘완벽주의적 자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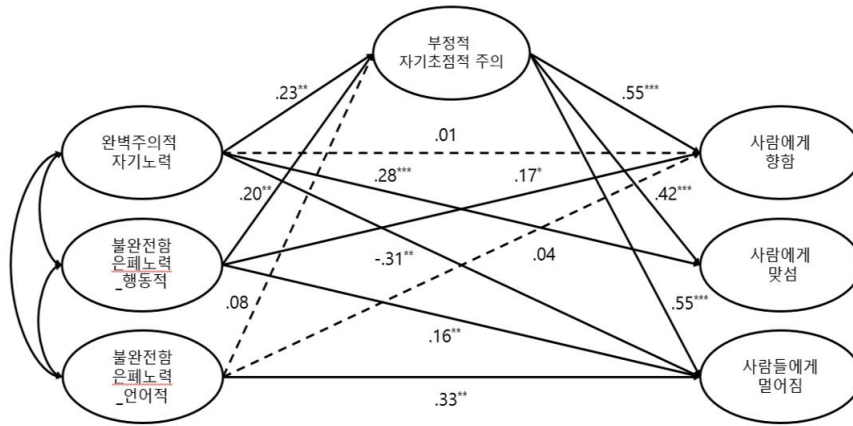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표 3. 간접효과

간접 경로	effect	Bias-corrected Bootstrap 95% CI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대인관계문제	.341	.256 ~ .426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향함	.13	.035 ~ .215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향함	.11	.023 ~ .191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향함	.05	-.054 ~ .147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맞섬	.10	.024 ~ .170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멀어짐	.13	.029 ~ .224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멀어짐	.11	.025 ~ .191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멀어짐	.05	-.051 ~ .145

* $p < .05$

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를 제외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간접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각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u와 Cheung(2012)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간접효과 크기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향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와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람에게 향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두 간접효과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ndirect = .022,

표 4. 간접효과 크기 차이검증

간접 경로	effect	Bias-corrected Bootstrap 95% CI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향함	.127	.035 ~ .219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향함	.112	.025 ~ .199
매개효과 차이	.022	-.101 ~ .148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멀어짐	.130	.030 ~ .230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멀어짐	.114	.027 ~ .201
매개효과 차이	.024	-.106 ~ .162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향함	.127	-.106 ~ .162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맞섬	.105	.029 ~ .180
매개효과 차이	.047*	.014 ~ .099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향함	.127	.035 ~ .219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멀어짐	.130	.030 ~ .230
매개효과 차이	-.008	-.043 ~ .010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맞섬	.105	.029 ~ .180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멀어짐	.130	.030 ~ .230
매개효과 차이	-.055*	-.118 ~ -.014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향함	.112	.025 ~ .199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맞섬	.092	.017 ~ .167
매개효과 차이	.037*	.011 ~ .081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에게 맞섬	.092	.017 ~ .167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 사람들에게 멀어짐	.114	.027 ~ .201
매개효과 차이	-.044*	-.090 ~ -.014

* $p < .05$

ns., 95% CI [-.101, .148].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두 간접효과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ndirect = .024, *ns*, 95% CI [-.106, .162].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향함’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맞섬’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irect = .047, $p < .05$, 95% CI [.014, .099].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에게 맞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irect = -.055, $p < .05$, 95% CI [-.118, -.014].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람에게 향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와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람에게 맞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irect = .037, $p < .05$, 95% CI [.011, .081].

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인(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사람에게 맞섬, 사람에게 향함, 사람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매개변인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치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대인관계문제(사람에게 맞섬, 사람에게 향함, 사람에게 멀어짐)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를 각각 세 가지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를 제외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및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려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실수에 민감하고, 외부에 주의를 돌리기 어려우며 자신의 부적절성에 대해 반추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의를 더욱 집중시킨다는 연구(Wong & Mak, 2013)와 자신에 대해 몰두할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적응 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연

구(김혜원, 이지연, 2017)와 일치한다.

한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상관관계는 있으나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대인관계 문제’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가 없기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표본에서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은폐 특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가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으나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하정희, 2011a)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말로써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는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며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으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가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격리의 방어기제와 관련이 있다는 맥락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못한 모습 자체를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문항 내용이 주로 행동적인 측면과 관련되

어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인 회피를 나타내는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와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와의 관계를 예민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보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자기은폐적인 성향이 강한 대학생에게 개입할 경우, 행동적 은폐 성향과 언어적 은폐 성향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상당 개입 효과가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가 ‘대인관계 문제’(사람에게 향함, 사람에게 맞섬,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간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람에게 맞섬’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간접효과의 크기보다 ‘사람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를 제외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의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이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며,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할수록 사람에게 맞섬 보다는 사람에게 향함이나 사람들에게 멀어짐의 문제를 더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자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타인의 거절이나 비난을 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보다 순응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

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으로써 특성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은 표현적 측면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과도하게 제시하려는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 양상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요인으로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초점을 두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인지적 요인으로서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대인관계문제의 선행요인으로 성격적, 인지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검증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변화하기 어려운 성격적 요인보다 비교적 개입이 용이한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향은 안정된 특성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성격 특성에 비해 비교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 변인이다. 따라서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 수준을 확인하고 개입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을수록 주의의 전환이 쉽게 되지 않는 인지적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적인 자기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은 개인에게 융통성 있는 주의를 길러주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보다 긍정적인 자기 측면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특정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성차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표본을 통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 넓고 고르게 대상자를 표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만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적응적인 변인과 대인관계문제를 심화시키는 매개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

- 생연구, 30(1), 38-63.
- 권선중, 김교현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K-MA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269-287.
- 김다정, 오경자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1), 56-63.
- 김지혜, 안창일 (1991).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243-261.
- 김혜원, 이지연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매개변인 탐색: 자기몰입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청소년상담연구, 25(1), 247-270.
- 박영주, 이영호 (2010).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441-452.
- 박정, 장현아 (2017). 대학생의 실제-의무 자기 불일치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 수용의 조절효과. 교육치료연구, 9(1), 249-263.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 손정일 (2015).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아탄력성 및 부정적 정서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화 (2012). 대학생의 분리-개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홍석 (2007).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유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연, 이종원, 허태균 (2015). 조절초점성향과 도구적·반응적 공격성.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9-249.
- 이연수 (201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451-464.
- 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서울: 학지사.
- 장효진, 안명희 (2015). 대학생의 병리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6(2), 249-271.
- 정원우 (2015).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래관계 질 관계에서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혜련, 김중남 (2016).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373-401.
-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1), 77-95.
- 하정희 (2011a).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방어유형과 우울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21-941.
- 하정희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 하정희 (2011b).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121-1140.
- 한가희, 김정민 (2017).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2), 161-179.
- 홍경화 (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홍서운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 Arnett, J. J. (2014). Presidential address: The emergence of emerging adulthood: A personal history. *Emerging Adulthood*, 2(3), 155-16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Carver, C. S., & Scheier, M. F. (1990). Origins and func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control-process view. *Psychological Review*, 97(1), 19-35.
- Chen, C., Hewitt, P. L., Flett, G. L., Cassels, T. G., Birch, S., & Blasberg, J. S. (2012). Insecure attachmen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disconnection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8), 936-941.
- Flett, G. L., & Hewitt, P. L. (2014).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erfectionistic automatic thoughts: A commentary on "Examining mutual suppression effects in the assessment of perfectionism cognitions: Evidence supporting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ssessment*, 21(6), 661-665.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 (2014).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s in depression: An analysis of validation seek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s.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7(1), 67-85.
- Flett, G. L., Hewitt, P. L., & De 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43-150.
- Greenspan, T. S. (2000). Healthy Perfectionism's an Oxymoron!.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1(4), 197-208.
- Habke, A. M., & Flynn, C. A. (2002). Interpersonal aspects of trait perfectionism. In G. L. Flett &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151-18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ewitt, P. L., Habke, A. M., Lee-Bagley, D. L., Sherry, S. B., & Flett, G. L.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1(2), 93-122.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9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Kerpelman, J. L., & Pittman, J. F. (2001). The instability of possible selves: Identity processes within late adolescents' close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24(4), 491-512.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Lane, J. D., & Wegner, D. M. (1995).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secre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237-253.
- Lau, R. S., & Cheung, G. W. (2012). Estimating and comparing specific mediation effects in complex latent variable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5(1), 3-16.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24(3), 367-389.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ley,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3), 477-490.
- Wong, C. C., & Mak, W. W. (2013). Differentiating the role of three self-compassion components in buffering cognitive-personality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mong Chinese in Hong Ko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162-169.
- 원고접수일 : 2022. 07.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9. 15.
게재확정일 : 2022. 09. 20.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u-Jung Shin¹⁾

Eun-Young Park^{2)†}

¹⁾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²⁾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on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is purpose, data from 387 college stud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22.0 and Mplus 7.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the sub-factor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had different influence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maladaptive self-focu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e.g., perfectionistic self-promotion, non-display of imperfection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atterns of interpersonal problems experienced vary depending on the sub-factor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hat maladaptive self-focus plays a role in activating behavior to avoid rejection or criticism of one's own identity.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terpersonal problems,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 This study is a revision and supplement to the 2019 Master of Psychology thesis of Catholic University in Daegu and was published as a poster at the 2020 Fall Conference 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 Corresponding Author : Eun Young Park /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 (38430) 13-13 Hayang-ro,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buk-do / E-mail : eyp0202@cu.ac.kr